

 방송통신위원회		<h1>보도 자료</h1>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2. 7. 29.(금) 10:00	배포 일시	2022. 7. 29.(금) 10:00		
담당 부서	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천지현 (02-2110-1270)	
		담당자	사무관	김은수 (02-2110-1274)	

방통위,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2차 지원업체 선정

- 골목식당 등 소상공인 70개사에 방송광고 제작비 등 지원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, 이하 ‘방통위’)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사장 이백만)와 함께 2022년도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·송출비 지원 사업의 2차 지원업체로 총 7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.

지원대상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전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선발했다. 선정된 업체는 ‘제이오븐’ (식료품 제조업체로 광고품목은 호두파이), ‘카페 뜰 단양’ (음식점업체로 광고품목은 마늘빵/수제버거) 등이며, 업종별 분포를 보면, ‘숙박 및 음식점업’ (28개사), ‘도매 및 소매업’ (8개사), ‘식료품 제조업’ (6개사) 순으로 나타났다.

※ 선정기업은 신청 누리집(<http://www.kobaco.co.kr/smad>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‘22년 지원대상은 총 177개사이며, 1차 선정된 107개사는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송출중임

지원업체는 그동안 비용이나 정보부족 등으로 방송광고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로 방통위의 방송광고 제작·송출비 등을 지원* 받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음식,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텔레비전·라디오 방송광고물을 제작해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방송을 통해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을 방송을 통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.

*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%(최대 9백만원)를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(자문)을 제공함

이번 2차 지원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, 총 262개 소상공인이 신청하였다.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78개사를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였다.

2차 신청 경쟁률은 지난 2월에 공모한 1차 신청 경쟁률보다 11% 증가했고, “22년 전체 신청 경쟁률은 전년에 비해 11%, 사업 첫 해(‘20년)보다는 63%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.

한상혁 위원장은 “방송광고 지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며, 앞으로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상공인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방송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.” 고 밝혔다. 끝.

